

LGU+, ESG 경영 박차... 연 4500만kWh 전력 줄인다

연내 가입자 집중된 100개 국사에 원격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에너지사용량 절감, 안전·보건 ↑

LG유플러스가 ESG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안전·보건 체제 확립에 박차를 가한다.

LG유플러스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원격으로 에너지원을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통해 ESG경영의 한 축인 '환경' 부문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통신국사는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며, 장애방지와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원격으로 제어된다. LG유플러스는 원격 제어 시스템에 에너지원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에는 확인이 어려웠던 에너지 누수 여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마곡국사에 구축된 외기냉방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를 확인할 수 있다. 누수 되는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연내 100여개 가입자가 집중된 국사에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이 시스템을 통해 국사당 약 5%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통신국사 내 외기냉방 시스템 도입도 확대한다. 외부의 찬 공기를 국사로 유입하는 외기냉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장치 1대당 연간

약 2만 킬로와트(kWh)의 전력을 아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설치가 가능한 통신국사를 추가로 발굴하고, 신축국사에는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외기냉방 시스템 도입을 늘릴 계획이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네트워크 장비의 전력 효율화도 추진한다. LG유플러스는 통신 사용자의 네트워크 접속 요청이 적은 특정 시간·시기에 5G·LTE 장비의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에너지 세이빙모드'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경기장이나 쇼핑몰, 등산로 등에 구축된 통신 장비에 세이빙모드를 적용, 전력 사용량 및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아울러 사옥 및 IDC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을 재가동해 전력 사용을 줄이는 방안도 실행한다.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전력 절감 노력을 통해 연간 4500만kWh 상당의 전력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LG유플러스는 ESG 경영을 담보하기 위해 전담 안전·보건 관리 조직의 구성과 역할을 확정했다.

안전·보건 관리조직은 CHO(최고인사책임자)가 총괄을 맡고, ▲네트워크 ▲기업 ▲고객서비스·품질혁신센터 ▲기타부문(기술·영업부문) 등 4개 조직으로 구성됐다. 이 조직은 모바일 기지국 소방시설 개선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 국제표준인증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환경 경영에 관한 사항의 개선 및 사고·오염 예방 활동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주기적인 이행상태 점검을 통해 발전시킬 것"이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자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모든 작업에 앞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조현범 한타 사장, '안전보건 경영' 강화

생산현장 '안전보건 경영' 결의 전문 인력 확대하고 교육 강화

조현범 한타 사장이 이끌고 있는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타이어업계에서 눈에 띄는 ESG 행보를 보이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 중에서도 '지속가능경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관리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6일 대전 및 금산 공장에서 안전보건 서약식을 갖고 관련 경영방침 및 전략 등 시스템을 강화해 안전보건 경영을 한층 향상시킬 것을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시 하는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임직원들의 인식에 내재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핵심



지난 6일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금산공장에서 열린 안전보건 서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략방향에 'ESG 혁신'을 추가하는 등 회사의 미션, 경영방침, 중장기 전략에 안전·보건·환경 경영을 명문화한다. 또 대표이사가 주관하고 주요 조직 최고책임자가 참여하는 'SHE 혁신위원회'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 조직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강화한다. 전문 인력이 안전과 보건을 전담해 관리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을 진행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 경영자문 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전체 구성원들의 핵심 가치 내재화를 위한 체험식 커리큘럼 위주의 전문 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사내 조직 및 임직원 교육에 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업체에도 적용하고 지원한다. 도급업체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교육 및 훈련, 협의회 운영을 독려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급업체 평가 및 구매, 발주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SKT의 혁신 채용... 자소서 없애고 수시 ↑

대졸 신입공채 연간 3회 이상 확대 올 첫 채용 스타트... 18일까지 접수

SK텔레콤이 채용시점을 연 3회 이상으로 늘리고, 실무형 인재 채용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채용전용을 바꿨다.

SK텔레콤은 신입 채용 프로세스를 자사 직무별 특성에 맞춰 세분화하고, 대졸신입 모집시점도 상·하반기 1회에서 연 3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채용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SKT는 올해부터 신입사원 정기공채를 수시채용 방식의 '주니어 탤런트'(직무경력 3년차 미만 지원자 선발) 채용과 통합했다.

'주니어 탤런트'는 기존 상·하반기 두 번에 그쳤던 정기 신입공채와 달리 유연한 수시채용을 통해 직무별로 현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제때에 선발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주니어 탤런트' 모집시점은 4월, 6월, 9월 총 3회이며, 향후에도 연 3회 이상의 대졸신입 채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SKT는 기존에 직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진행하던 서류접수-필기전형-면접전형의 틀을 탈피하고, 직무별 전형의 평가방식을 다양화해 지원자들의 강점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준비생들은 획일화된 자기소개서를 벗어나 직무에 관련된 경험을 기술한 지원서를 제출하고, 코딩테스트나 직무PT 및 그룹과제 등이 포함된 지원 직무별 평가 절차를 밟게 된다.

SKT의 올해 첫 '주니어 탤런트' 채용 서류접수는 오는 18일까지다.

SKT는 오는 12일과 13일 오후 7시 자사 메타버스 서비스인 '점프 버추얼 밋업'을 활용해 채용 설명회를 선보인다. 메타버스란 가상 공간에서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고 최대 120명까지 동시 참여 가능한 컨퍼런스, 회의, 공연 등 다양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SKT의 서비스다.

/김나인 기자

수입차 업계, '봄 맞이 차량 관리 캠페인'

한불모터스·더클래스 효성 등 실내케어 서비스, 필터류 할인

본격적인 봄날들이 시즌을 맞아 국내 수입차 업계가 차량 관리 캠페인을 진행한다.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차량의 쾌적한 주행 환경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푸조·시트로엥·DS오โต모빌의 공식 수입원 한불모터스가 봄철을 맞아 오는 6월 30일까지 약 세 달간 '블라썸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불모터스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봄철을 맞아 차량 내 공기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쾌적한 주행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캠페인 기간 동안 고객들은 에어컨 필터 부품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단 사고·보험 수리, 부품 판매는 제외된다. 필터 교환 고객에게는 송풍 시스템 및 냉각기 내부 세균 및 박테리아를 제거해주는 실내 케어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도 '2021 새봄맞이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 더클래스 효성은 봄철 미세먼지·황사로 인한 차량 성

능 저하 예방을 위한 차량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봄철 차량 관리에 필요한 주요 부품 및 소모품에 대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캠페인은 더클래스 효성이 운영하는 전국 11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와 실내 공기정화 필터류를 15% 할인된 가격(공임 제외)에 제공하며, 유상 수리 고객 및 메르세데스-벤츠 테일러메이드 컬렉션(일부 품목)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와이퍼 블레이드를 증정한다.

토요타코리아는 4월 30일까지 전국 토요타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에서 '2021 토요타 스프링 휴머닝'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

/양성운 기자

KT, 글로벌 5G MEC 생태계 확장

5G 퓨처 포럼 통신 회원사 모집

KT는 오는 20일까지 5G 퓨처 포럼 신규 통신 회원사를 모집해 글로벌 5G MEC 생태계 확장한다고 7일 밝혔다.

5G 퓨처 포럼은 글로벌 5G 도입 확산과 5G 멀티 액세스 에지 컴퓨팅(이하 5G MEC) 협력을 위해 결성한 글로벌 사업 연합체다. 5G 퓨처 포럼에는 KT(한국), 버라이즌(미국), 보다폰(유럽), 텔스트라(호주), 로저스(캐나다), 아메리카 모빌(중남미) 등 통신사들이 속해 있다.

5G 퓨처 포럼의 창단멤버인 KT는 지난해 1월 5G 퓨처 포럼 출범 이후 글로벌 5G MEC 확장을 위한 공동 규격

정의 등 사업·기술 분야의 의제를 논의해 왔다. 5G MEC는 통신 에지 기지국에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을 적용해 네트워크의 지연 시간을 줄이고, 속도와 보안성을 강화하는 기술이다.

5G 퓨처 포럼은 다국적 기업들의 5G 솔루션의 사용 용이성은 향상시키고 공공·민간 글로벌 모범사례를 공유해 전 세계에 5G MEC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대륙간 상호 호환 규격 정의의 기반으로 글로벌 개발자들은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고객은 글로벌 5G 에코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게 된다.

/김나인 기자